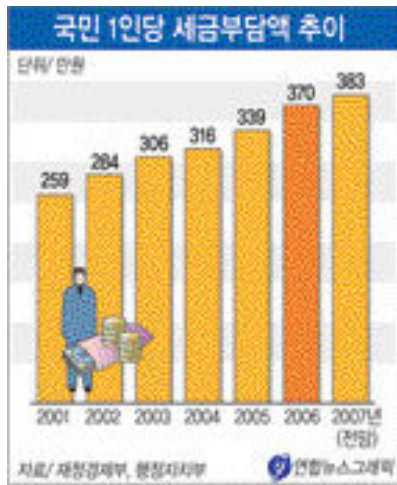


작년 1인 세부담 370만원

전년보다 30만원 늘어...올해는 383만원 전망

조세부담률 20% OECD 평균보다 낮아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이 전년보다 30만원 정도 늘어난 평균 3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민 1인당 세금도 평균 383만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 평균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 30만원 정도 증가 = 1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국세는 138조원이었고 지방세는 40조7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우리나라 국민이 지난해 동안 납부한 세금은 모두 178조7천억원에 달했다.

한해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을 계산하면 309만1천원으로 전체 세금의 국민 1인당 부담액보다 줄어든다. 법인세를 제외한 지난해의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같은 기준의 전년(277만5천원)과 비교하면 31만6천원(11.4%) 늘어났다.

행자부는 지난해 거둬들인 지방세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이후에 나오지만 잠정 집계 수치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징수된 세금 총액을 지난해 총인구 4천829만7천184명으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이 370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계산된다.

또 올해 국세수입(세입예산안) 147조3천억원과 지방세 징수 예상 규모 38조4천억원으로 계산한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383만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2천원(3.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의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 339만4천원보다 30만6천원(9.0%) 늘어난 규모다. 2005년의 국세 징수실적은 127조5천억원이었고 지방세는 35조9천억원이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를 제외하고 지

국인 1인당 세금부담액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양도소득세 실가 과세 확대, 임금 상승,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세는 전년보다 8.3% 증가했고 지방세는 13.4% 늘어났다.

재경부는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 살림이 커지면서 세금 규모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전체 인구 증가율은 크지 않아 1인당 세금부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확한 국민 1인당 평균 세금 납부액은 지방세의 공식 통계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 중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모든 국민이 1인당 세금부담액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국세·지방세 큰 폭 상승 = 지난해

그는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도 선진국 평균보다 낮아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높은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200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은 52.9%이고 종합소득자(자영업자)의 면세자 비율은 44.7%였으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 정도로 15~18% 수준인 일본과 미국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6%보다는 낮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보해 매화사진 촬영대회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 주최 '제 6회 보해 매화사진 촬영대회'가 사진 애호가, 상춘객 등 4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7일 해남 보해 매실농원에서 열렸다. (보해양조 제공)

함께 여행 떠나고 싶은 CEO

국내 윤종용·해외 빌 게이츠

'커리어' 1,784명 조사



〈윤종용 부회장〉 〈빌 게이츠 회장〉

직장인들이 가장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은 국내기업 CEO는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해외기업 중에서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다.

18일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에 따르면 자기계발서 '밀리언달러 티켓'을 출간한 마쉴란 출판사와 함께 직장인 1천784명을 상대로 '함께 여행하고 싶은 국내기업 CEO'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1%가 윤종용 부회장이라고 답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12.3%로 2위를 차지했으며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8.6%), 이진호 삼성 회장(6.2%), 김신배 SK텔레콤 사장(5.2%), 마이클 그리말디 GM대우 사장(4.8%), 황영기 우리은행 회장(4.7%),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3.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기업 중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8.7%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을 여행길에 동행하고 싶은 CEO로 꼽았고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10.0%), 잭 웰치 GE 전 회장(9.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밖에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7.7%), 위렌 버트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7.0%), 칼리 피오리나 HP 전 회장(5.2%), 리 스톱 월마트 회장(3.3%), 오루다 히로시 도요자동차 전 회장(3.0%), 사무엘 팔미사노 IBM 회장(2.7%)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연합뉴스

농지은행을 566억원 들여

농민 땅 매입해 장기 임대

한국농촌공사는 오는 19일부터 한달 동안 '2007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땅을 농지은행이 사들인 뒤 다시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함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돕는 제도다. 농가는 토지 매각 대금으로 빚을 청산할 뿐 아니라 매각 대금 1% 이하의 낮은 임대료만 물고 같은 땅을 5~8년 동안 빌려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땅을 다시 사들일 수도 있다.

재해에 따른 피해율이 50%를 웃돌거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주주사 관할 농촌공사 지사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농촌공사는 올해 총 사업비를 566억원으로 작년보다 34% 늘리고 부채 규모가 5천만원이 넘으면 연체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자격도 완화했다.

지원 대상자는 경영위기 정도, 회생 가능성, 경영능력 등에 대한 종합 평가와 농지은행 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4월말까지 선정된다. 이후 농지 매매 계약은 매입 대상에 대한 감정 평가가 끝난 뒤 5월부터 체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중국 금리 인상 단행

인플레이·투자 억제 위해 0.27%P...과장 주목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17일 인플레이션과 투자 억제를 위해 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수신 및 여신 기준금리를 18일부터 0.27%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금리는 2.52%에서 2.79%로, 대출 기준금리는 6.12%에서 6.39%로 오른다.

인민은행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의 기준금리 상향조정이 통화 신용대출 및 투자의 합리적 증가 유도, 전체적인 물가 수준 안정 유지, 금융시스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조치가 경제의 균형 성장과 구조 최적화, 건강하지만 빠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의 금리 인상은 지난해 4월과 8월에 이어 지난 1년동안 세번째다. 인민은행은 또 지난달 25일 지난해 7월 이후 다섯번째, 올해 들어서는 두번째로 시중은행의 위안화 저축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상, 10%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의 이번 금리 인상 조치는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폐막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출과 투자가 너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한 직후 단행됐다. 원 총리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인 통화 억제에 나섰다"며 "아직도 투자율이 지나치게 높고 시중 유동성이 너무 많다"고 우려했다.

경제 전문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두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5만원권 따뜻한 색 10만원권 차가운 색

고객권 디자인 전망

새 1만원·1천원 지폐가 발행된 지 두달이 다 돼가는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의 홈페이지에는 아간에 1만원권과 1천원권의 색상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글이 많다.

구권 지폐는 1천원권의 색상이 붉은색 기운이 있는 보라여서 어두운 초록의 1만원권과 쉽게 구별됐으나 새 지폐는 1천원권이 밝은 파랑으로, 1만원권은 밝은 초록으로 같은 청록계열로 바뀐에 따라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은은 새 지폐가 발행된 지 얼마되지 않고 유통량도 많지 않은 가운데 지폐의 색상과 도안에 익숙치 않아서 생기는 경우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새 지폐의 색상 체계가 오히려 구권 지폐보다 더 구별하기 쉬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로 색상에 따라 색을 계통적으로 등급에 배열한 기본 색상표인 10색상환표를 기준으로 하면 새 지폐 1만원권과 1천원권은 3단계 정도 떨어져 있다.

10색상환표 기준으로는 1단계의 색상 차이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다. 1천원권 색상을 기존의 보라에서 파랑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한은은 "이웃 권종인 5천원권과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008년말 또는 2009년초 발행될 고객권의 색상은 5만원권의 경우 따뜻한 색이, 10만원권은 차가운 색으로 디자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5만원권은 붉은색이나 오렌지색 계열이, 10만원권은 청색 또는 회색 계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대표 기업들 적대적 M&A 무방비"

商議 보고서 지적

한국 경제의 간판이라고 할 코스피(KOSPI) 200대 기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의해 불안해하고 있으나 이런 위협에 맞서 제도적 방어장치를 마련한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발표한 '2007년도 주주총회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선진국형 방어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

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KOSPI 200대 기업(응답기업 175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잠재적으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다'(25.2%)거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다'(1.7%)고 답해 경영권 유지에 불안을 나타낸 기업이 26.9%에 달했다. 이는 2004년 대한상의가 같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온 18.2%보다 8.7%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그러나 '적대적 M&A 위협에 방비하

고 있다'는 기업은 49.7%에 그쳤으며 그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대비방법이 '대주주 지분율'(80.5%)과 '자사주 매입'(14.9%) 등 지분을 확보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이 95.4%로 절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이사의 선·해임요건을 강화한 '초다수 결의제'와 적대적 M&A 퇴직임원에 대해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토록 한 '황금낙산' 등 제도적 방어장치를 마련한 기업은 단 2개에 불과했다. M&A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비책이 전혀 없다고 밝힌 기업은 50.3%나 됐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선도유통	미스물 물류 관리와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3/20	062-954-3914
☎동백이손해사정	재물·인보험분야 손해사정 직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4	02-763-7747
☎유동원산업	토목종합건설 직원채용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3/24	062-512-2284
햇봄	인터넷 쇼핑몰 패션 스타일리스트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4	062-375-5998
대우캐피탈 광주전남지사	2007년 분야별 정규직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4	062-524-6900
윤선생영어교실(광주북구점)	[영어교육명문학교]상급/관리 선생님 채용공고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3/24	062-526-0566
☎엘이스	기술개발부문 경력직(선임급, 책임급) 연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4	062-973-1119
☎화인테크	인테리어 시공 관리기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3/28	062-521-4567
☎유테크	KTF 중계기유지/보수 신규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3/28	062-651-2255
미니골프(에이치오엔)	[미니골프] 롯데광주점 정규직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8	02-878-3070
☎엘이스	[바보사랑] 물류센터 관리직 채용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3/28	062-717-5036
유성어패럴	차평동 세정아울렛 바리스타 판매사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8	062-384-2262
☎코엔텍	[환경] 자기측정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3/31	062-515-4666
☎선진일미늄	경리 및 회계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3/31	062-956-4780

<광주직접리야 512-6210 제공>

로또복권

(제22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04 19 26 27 30 42	07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808,969,950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9,575,768	26
3 5개 숫자 일치	1,562,151	1,158
4 4개 숫자 일치	59,753	60,549
5 3개 숫자 일치	5,000	1,025,571

팝콘복권

(제47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4조 595432
2	5억	4조 595431
		4조 595433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42793
5	1만	각조 728
6	2천	각조 57
		각조 83
7	1천	각조 0
		각조 4

<35평 확장형 평면도>



연제2차는 마감재 업그레이드 이외에도 4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무료 발코니확장, 중도금전액무이자 등의 특장점을 갖고 있다는 게 업체측의 설명이다. 문의 062-366-4220.

대주건설 관계자는 "마감재 업그레이드는 그동안 많은 업체에서 계획했지만 자금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며 "연제2차 고객들은 저렴한 분양가로 최신 마감재를 사용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